



겨울과 봄 사이 개구리가 동면을 깨고 나온다는 경칩(驚蟄)인 6일 무등산에 봄을 시샘하는 서설이 내렸다. 전남대 캠퍼스에서 여대생들이 무등산 설경과 꽃샘추위 속에 만개한 매화꽃을 배경으로 화사한 웃음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학법 처리 또 무산...주택·국민연금법도 미뤄 “국회가 민생 발목” 비난

이달말 국회 열어 재논의

국회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6일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관련기사 4면)

결국 최대 쟁점이었던 사학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 부동산대책입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안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등 민생·경제관련 주요 법안이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3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뤄졌다.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가 오히려 민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의사일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전제희 정책위의장 등 양당 지도부는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종 조율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외장 직권 상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으며 결국 이자제한법,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 85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안은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3월 임시국회 개회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인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 도출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외국 명문校 와야 기업도 온다

“광주 교육여건 나쁘다” 美 벨렙社 지사 등 설립 포기

외국 기업의 광주 유치와 광주 산업 등 첨단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세계적 명성을 지닌 ‘외국인 학교’ 유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광주에 진출하려 해도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경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고급 인력들도 자녀 교육을 이유로 광주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전

자나 의료, 각종 첨단산업 분야에서 앞서 있는 외국 기업들이 광주에 올 경우 직접적인 부가가치는 물론, 고급 연구 인력의 유입으로 광주 R&D(연구·개발) 분야 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 유치는 또 다른 산업인프라나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광주 진출을 추진했던 외국 유명 기업들이 외국인 상대 교육시설 부재를 이유로 포기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92개에 이르는 세계 최초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벨렙사가 광주지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벨렙 서울지사 측에서 ‘교육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또 2005년에는 정부가 세계적인 약 관련 기업체에 국가 보조금 600여 원을 따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화순 백신공장 설립을 제안했으나 역시 교육 등 생활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이에 반해 전국 지자체들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 중 하나로 외국인 학교 유치를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세계 유수의 ‘외국인 학교’ 유치 또는 한국 분원 설립에 나섰으며, 충남도도 올해부터 ‘외국인 CEO 전용 주거마을’을 조성하기로 상향해서 광주시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광기술원 등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외국 기업들을 끌어 올 수 있는 최고의 유인책은 명문외국인 학교를 광주에 설립하는 것이며, 이는 국내의 고급 두뇌를 흡수해 연구 인력을 양성화할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병화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전 광주시 정무부시장)는 “영국의 이튼 스쿨과 같은 명문 사립학교를 분교 형태로 광주에 개설할 경우,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소나 지사를 얼마든지 광주로 이전시킬 수 있다”면서 “이제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얼마 전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를 대덕단지에 유치하려다 연구소측이 프랑스인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서울 관교에 입지를 잡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상여꾼 없는 낙도 장래 치러 드려요 신안군 ‘토털 서비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장래 토털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안군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장례용품 지원과 함께 장례 절차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사후(死後)복지’까지 책임지는 장례 토털 서비스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조례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군은 장례에 필요한 수의복, 음식 등 응급 일체를 ‘선 현물 지원,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화장 때에는 2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교육물가 5.7% 치솟아

학원비·학습지값 주도...소비자물가 2.6배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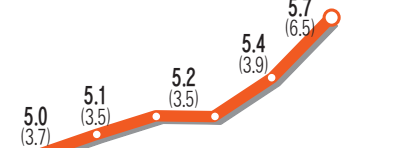
새해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6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7% 올라 2004년 2월의 6.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교육물가는 같은 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2%의 2.6배에 달했다.

교육물가 상승은 가장 학습지와 대입 학원비 등의 인상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학습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뛰었다. 가정학습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것은 200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종합반 대입 학원비는 1년 전보다 6.6% 올랐으며 단과반도 지난해 동월에 비해 4.0% 상승했다. 종합반 고입 학원비는 6.6% 올랐고 단과반 고입학원비는 4.8% 상승했으며 외국어 학원비도 4.9% 인상돼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 교육 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 (이)은 유치원·초등교육 관련물가 '06.9월 10월 11월 12월 '07.1월 2월

유치원 납입금은 8.6%, 피아노 학원비는 4.7%, 미술학원비는 4.5%, 보습학원비는 3.9%의 상승세를 각각 보였다.

교육물가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학부모들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교복 가격은 남자 학생복의 경우 7.0% 상승했으며 여자 학생복은 7.5% 올라 교복 가격 인상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를 훨씬 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

유망학원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ntbu.ac.kr
세인트 일리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inam.ac.kr

뮤지컬 '에비타' 광주공연
3월 9일(금)~11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조이트레블, 수리특이, 부동산, 교육, 의료,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광고. 조이트레블: 42-2027-7138. 수리특이: 220-2200. 부동산: 220-2200. 교육: 220-2200. 의료: 220-2200. 관광: 220-2200.